무엇을 얻을 것인가보다 무엇을 놓을 것인가…그의 삶은 '비움의 역사'

■ 오방 최흥종,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가-3 오방(五放)과 화광동진(和光同塵)

한 인간의 변화가 한 도시를 바꾸다

광주의 역사는 단지 사건의 역사가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눈물, 희망과 헌신이 켜켜이 쌓여 만들어진 기억의 역사이다. 그래서 한 도시를 이해하려면 그 도시가 기억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아야 한다.

광주에는 수많은 역사적 인물들이 있다. 독립운동가가 있고, 민주화운동의 주역들이 있으며, 교육과 문화 발전에 기여한 수많은 선각자들이 있다. 그러나 광주의 정신적 유산을 이야기할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다. 바로 오방(五放) 최흥종 목사이다.

오늘날 젊은 세대에게 그의 이름은 다소 낯설 수 있다. 그러나 불과 한 세기 전만 해도 최흥종은 광주 시민들에게 특별한 존재였다. 그는 유명한 정치가도 아니었고, 큰 재산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다. 오히려 가진 것을 나누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고, 사람들의 곁에 머물렀던 사람이었다. 그는 한센병 환자들의 친구였고, 걸인들의 아버지였으며, 가난한 이들의 이웃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사람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광주의 성자'라고 불렀다. 그러나 최흥종의 삶을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는 곧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2026년 7월 창간 27주년을 맞는 미션21이, 올해로 서거 60주년을 맞는 '광주의 아버지' 오방 최흥종 선생의 일대기를 4회에 걸쳐 게재한다.

/글=이박행 본지 주필

오방 최흥종 선생.

비움으로 빛이 된 사람

최흥종의 삶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은 먼저 그의 헌신을 떠올린다. 한센인 사역, 구제사업, 교육운동, YMCA 활동, 민족운동… 그러나 그의 삶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러한 실천들을 가능하게 한 더 근원적인 정신이 존재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오방(五放)'과 '화광동진(和光同塵)'이다. 최흥종은 단순히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왜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여기에 있다.

오방은 오방색이 아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오방'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먼저 오방색(五方色)을 떠올린다. 동서남북과 중앙을 상징하는 다섯 가지 색이다. 그러나 최흥종이 사용한 오방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다. 오방(五放). 다섯 번의 놓아버림이다. '방(放)'은 놓아준다는 뜻이다. 내려놓는다는 뜻이다. 비운다는 뜻이다. 최흥종에게 오방은 하나의 철학이었고 삶의 방식이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살아간다. 명예를 얻고 싶어 한다. 재산을 얻고 싶어 한다. 권력을 얻고 싶어 한다. 사람들의 인정을 얻고 싶어 한다. 그러나 최흥종은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 무엇을 얻을 것인가보다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가를 고민했다. 그래서 그의 삶은 소유의 역사라기보다 비움의 역사였다.

첫 번째 놓아버림, 자신을 놓다

모든 변화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된다. 최흥종 역시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젊은 시절 '최망치'로 불리던 그는 강한 자아와 뜨거운 혈기를 가진 사람이었다. 그러나 복음을 만난 뒤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예수는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다. 최흥종은 이 말씀을 교리로 이해하지 않았다. 삶으로 받아들였다. 자신의 욕망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기 시작했다. 자신이 원하는 삶보다 자신이 살아야 할 삶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오방의 출발점은 바로 여기였다.

두 번째 놓아버림, 명예를 놓다

사람들은 인정받기를 원한다. 칭찬받기를 원한다. 기억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최흥종은 자신을 드러내는 삶보다 자신을 감추는 삶을 선택했다. 그는 자신이 한 일을 과장하지 않았다. 공로를 주장하지 않았다. 영웅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는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기를 바랐다. 그래서 그의 삶에는 화려한 성공담이 없다. 대신 오랜 시간 낮은 곳에 머문 사람의 흔적이 있다.

세 번째 놓아버림, 물질을 놓다

최흥종은 가진 것을 움켜쥐지 않았다. 오히려 나누었다. 그는 물질을 소유의 수단으로 보지 않았다.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보았다. 그래서 그는 가진 것을 거리낌 없이 나누었다.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추운 사람에게 옷을 주었다. 그에게 재산은 쌓아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기 위한 것이었다. 오늘날 소비와 경쟁이 삶의 기준이 된 시대에 최흥종의 삶은 묵직한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보다, 얼마나 많이 나누었는가를 물어야 하지 않을까.

네 번째 놓아버림, 권력을 놓다

종교도 권력이 될 수 있다. 교회도 권력이 될 수 있다. 지도자의 자리 역시 권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최흥종은 권력을 추구하지 않았다. 그는 사람들 위에 서기보다 사람들 곁에 서기를 원했다. 그는 지배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섬기는 지도자가 되고자 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듯이, 그는 낮은 자리에 머물기를 선택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신뢰했다. 권위를 주장하지 않았지만 존경받았다. 힘을 과시하지 않았지만 영향력을 가졌다. 그 영향력은 권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인격에서 나온 것이었다.

다섯 번째 놓아버림, 집착을 놓다

인간은 누구나 집착을 가진다. 과거에 대한 집착. 성공에 대한 집착. 자존심에 대한 집착. 소유에 대한 집착. 그러나 집착은 결국 인간을 묶는다. 최흥종은 그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자신을 비우려 했다. 오방은 포기가 아니다. 더 큰 자유를 위한 비움이다. 그래서 공연 《오방 최흥종》 역시 오방을 "상실"이 아니라 "자유"의 장면으로 표현한다.

화광동진, 빛을 감추고 세상 속으로

오방이 비움의 철학이라면 화광동진은 그 비움이 도달하는 삶의 방식이다. 화광동진(和光同塵).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빛을 부드럽게 하여 세상 속 먼지와 함께한다'는 뜻이다. 빛을 없애라는 말이 아니다. 빛을 과시하지 말라는 뜻이다.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세상 속으로 스며들라는 뜻이다. 최흥종의 삶은 바로 그러했다. 그는 자신을 빛내려 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하려 했다. 그는 주목받는 인물이 되기보다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자 했다. 그래서 그의 삶은 화광동진의 대표적 실천이라 할 수 있다.

예수의 길, 화광동진의 길

생각해 보면 예수의 삶도 그러했다. 예수는 권력을 추구하지 않으셨다. 왕궁이 아니라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 권력자들과 함께하기보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하셨다. 십자가 역시 가장 낮은 자리였다. 최흥종은 바로 이 예수의 길을 따르려 했다. 그래서 그의 화광동진은 단순한 동양철학의 개념이 아니라 복음의 삶으로 재해석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질문

오늘 우리는 자기 드러냄의 시대를 살고 있다. 더 많이 보여야 하고, 더 많이 알려져야 하며,더 많이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최흥종은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 그는 자신을 낮추었다. 자신을 비웠다. 자신을 감추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가장 큰 빛이 되었다.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가 잃어버린 것은 능력이 아니라 이러한 삶의 방향인지도 모른다.

비움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최흥종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려 했던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가장 많은 것을 남긴 사람이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소유를 통해 남기지 않았다. 비움을 통해 남겼다. 그래서 그의 삶은 지금도 기억된다. 오방은 비움의 철학이다. 화광동진은 사랑의 실천이다. 그리고 그 두 개념은 결국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다.

"자신을 비워 타인을 살리는 삶."

최흥종은 평생 그 길을 걸었다. 그리고 오늘 그 길은 다시 우리 앞에 놓여 있다.

다음 회에서는 융복합음악극 《오방 최흥종》을 중심으로, 최흥종의 삶이 어떻게 예술로 재해석되었는지, 그리고 왜 이 작품이 단순한 공연을 넘어 공공신학적 예술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화광동진, 비움의 철학에 도달하는 삶의 방식 '빛을 감추고세상 속으로'

'자기드러냄의 시대'를 살고있는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묵직한 질문

자신을 비워 타인을 살리는 삶을 평생 걸어온 오방, 이시대 큰 스승

폐결핵 환자들을 위한 송등원(1956), 무등원(1963)설립.

대표기도하는 최흥종 목사.
광주여, 일어나 빛을 발하라!